



가정상담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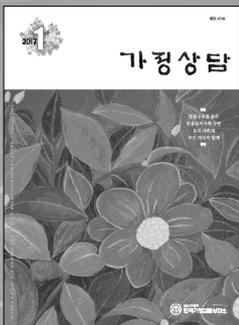


2016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18주기를 맞아 상담소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묵념을 올리고, 상담소 회관 1층 이태영 선생님 부조 앞에 헌화하였다. (관련기사 26면)



지난 2016년 12월 14일 본소에서 구암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23, 27면)

- 4 • 새 해 메시지
- 6 • 특집 I | 2016 상담소
- 11 • 특집 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9강
- 17 • 가정폭력상담실
- 22 • 인터넷 상담
- 23 • 법률구조체험교육 후기
- 24 • 결혼과 인생(167) 만화일기
 새해 희망 _ 장차현실
- 25 • 좋은 책
 설득의 정치
- 26 • 상담소 소식
- 29 • 지부소식
- 30 • 지부소장 새해인사
- 32 • 상담통계
- 33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새해 메시지



가족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회, 국가를 꿈꾸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정유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는 상담소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 법률구조 사업의 선구자로서 상담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담과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념 심포지엄,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전시회, 기념 출판물 발간 및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될 상담소 영화제작에 이르기까지 상담소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숨 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소는 우리가 가는 길이 가정문제의 해결과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역사가 된다는 신념으로 백년, 이백년을 향한 끊임없는 걸음을 계속할 것입니다.

상담소는 창설이념에서 가르치듯이 오랜 경험에서 가정의 평화가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인권을 회복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상담소의 오랜 경험은 또한 국가,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지켜져야 그 울타리 안에서 가정과 개인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안과 경기침체는 바로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흔들리게 하며 이는 곧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로 연결되어 가족해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경제위기가 가족 갈등,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상담소에서는 어렵지 않게 목격해 왔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고용불안은 일상화 되고 여기에 고령화 사회의 그늘까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한 세대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연애, 혼인,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에 이어 주거 등 더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N포 세대'라 자조하고,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이른다는 노인세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문제이기에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가정문제를 접하며, 무엇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깨지는 가정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더욱 커집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어떠한 형태로든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담소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난제들이 우리 가정에 어떠한 태풍으로 몰아치게 될까 우려도 커지는 마음입니다.

한 편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 앞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책임은 없는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 역할을 포기하거나 다하지 않았거나 혹은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일을 관습과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안이하게 행사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사회가 지난해부터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참담함의 시간들이 정체가 불분명한 어떤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찬란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치른 대가는 정당한 것이었는지 물어야 하고 미혹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역사적 성공을 향한 위기의식의 발현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60년 간 그리해왔듯이 올해에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가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이들이 상담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도 눈감지 않는다면 2017년 새해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새해는 진정 찬란한 시절로 꽃 필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를 가져봅니다.

특

집

1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년 총결산

1월

- 4일 시무식
- 4-15일 사법연수원 전문분야 실무수습
- 4-29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 4-2월5일 동국대 법학과 현장실습
- 4-2월26일 이화여대 직장체험 연수
- 8일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 13-15일 교육부 교원직무연수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25일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재산분할관련 외부전문가 세미나' 토론발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5-2월5일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 26일 말레이시아 가사 분쟁 조정 연구팀 본소 방문
- 28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부부갈등의 분석과 진단' /김병후 원장

2월

- 1-26일 동국대 법학과 현장실습
- 4일 상담소 홍보계획 수립을 위해 광고대행사 '베리 모먼트' 최성희 상무와 환담/곽배희 소장
- 17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 동영상 제작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심사/곽배희 소장



- 18일 정기 전기 이사회
- 24일 출장상담(용강노인복지관)/조은경 상담위원
- 25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뇌의 속성과 다름' /김병후 원장
- 26일 경찰청 4대사회악 근절 정책자문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본부 총 상담 6,785 건

본부 총 상담 5,887 건

3월

- 3일 가정폭력억제개선 교육동영상 제작 기술평가위원회의 /곽배희 소장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정연이 상담위원
 - 4일 학교폭력예방교육(별망중학교)/최수진 상담위원
 - 7일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김홍원 신입사무처장 본소 방문 및 환담 /곽배희 소장
 - 11일 본소 창립60주년 관련 여성신문과 인터뷰 /곽배희 소장
 - 15일 정기 총회
 -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청소년·아동관련 민간단체간담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1일 여성보호사회 신입회장단 본소 방문 및 환담 /곽배희 소장
학교폭력예방교육(광명 광성초등학교) /조은경 상담위원
 - 22일 학교폭력예방교육(백양초등학교)/김진영 상담위원
 -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최 여성계 인사간담회 /곽배희 소장
 - 25일 본소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 심포지엄 개최
-
- 28일 각당복지재단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에서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학교폭력예방교육(울현초등학교)/최수진 상담위원
 - 29일 가정폭력억제개선 교육동영상 제작 기술평가위원회의 /곽배희 소장
학교폭력예방교육(심곡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학교폭력예방교육(도래울중학교)/조은경 상담위원
 - 30일 학교폭력예방교육(동패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 31일 학교폭력예방교육(성주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학교폭력예방교육(하일초등학교)/황현정 변호사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마음의 구성과 감정' /김병후 원장
- 3월말-6월말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시민 희망 광고 소재 공모' 에 당선되어 서울시내 지하철 광고판에 본소 홍보

본부 총 상담 7,178 건

4월

- 1일 오동준, 권혁채 신입 공익법무관 부임
학교폭력예방교육(운중초등학교)/김민선 변호사
학교폭력예방교육(삼가초등학교)/정연이 상담위원
 - 4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수탁기관 간담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5일 학교폭력예방교육(건원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 6일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법교육(여의도 시민공원)
-
- 학교폭력예방교육(제일초등학교)/정연이 상담위원
 - 7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 등 관계자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용 교수 본소 방문
 - 9일 워싱턴가정상담소 정인숙 이사장 내소하여 워싱턴가정상담소 설립40주년 관련 환담/곽배희 소장
 - 11일 학교폭력예방교육(장기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9일 LH한국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강서권주거복지센터 양지수 차장 외 1인 방문
 - 21일 학교폭력예방교육(행신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 25일 제53회 법의날 기념식/곽배희 소장
 - 26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 특강/박소현 상담위원
 - 27일 온누리호스피스 대상 가족법 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27일 법률구조체험교육(신남중학교)/조은경 상담위원
- 28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관계의 뇌와 사랑' /김병후 원장

본부 총 상담 6,310건

5월

- 11일 학부모 대상 법교육(오산 양산초등학교)
/최수진 상담위원
- 12일 창립 60주년 기념 가정폭력 피해자 간담회



- 13일 전주지부 신임 임직원 본소 방문
관악구청 가정복지과장과 아동정책담당팀장 방문 및
업무협력 논의
- 14-15일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법교육(서울 시민청)
- 16일 본소 창립60주년 관련 법률TV와 인터뷰/곽배희 소장
- 17일 중국 중앙TV(CCTV)와 노년이혼에 관한 인터뷰
/곽배희 소장
- 19일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4일 창립 60주년 기념 가정폭력 행위자 간담회
- 26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분노의 의미와 기능' /김병후 원장

- 30-7월 22일 사법연수원 전문분야실무수습
- 31일 '제16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선정 및 시상식 참석/
곽배희 소장



성도대상 법교육(온누리 교회)/조은경 상담위원

본부 총 상담 6,199 건

6월

- 1일 제26회 호암상 시상식 리셉션 참석/곽배희 소장
-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현 신임 이사장 내소 및
업무협조 관련 환담/곽배희 소장
- 7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임직원 대상 법교육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8일 이화여대 소식지 <이화소식>과 인터뷰/곽배희 소장
- 14일 학교폭력예방교육(창현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 19일 YTN뉴스 'YTN24'와 본소 창립60주년 인터뷰
/곽배희 소장
- 20일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곽배희 소장
- 21일 학교폭력예방교육(수내초등학교)/이지현 상담위원
- 22일 창립 60주년 기념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한다.'
심포지엄 개최



- 23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김병후 원장
- 24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정연이 상담위원
<주간조선>과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에 대해 인터뷰
/곽배희 소장
- 27일 주한 미국대사관 브루스 크래프트 영사 등
관계자들 본소 방문 및 협조요청
출장상담(용강노인복지관)/서지연 변호사
- 27-7월 8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 27-7월 21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 27-8월 22일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 29일 학교폭력예방교육(상원고등학교)
/복미영 상담위원
- 30일 N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 준비를 위한
실무자 회의

본부 총 상담 6,593 건

7월

- 1-31일 이화여대 직장체험연수
- 4-15일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실습
- 6일 '도스토예프스키의 세 가지 질문'을 주제로
직원재교육 실시/석영중 교수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모임
- 7일 관악구청 구민 대상 '양성평등과 가족법' 주제 강의
/곽배희 소장
- 8일 학교폭력예방교육(호곡중학교)/김진영 상담위원
- 13일 법률구조체험교육(강신중학교)
/조은경 상담위원, 권혁채 법무관
- 18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이봉주 지도교수
본소 방문
- 25일 출장상담(용강노인복지관)/복미영 상담위원
- 26일 법무부 방문 및 권정훈 인권국장,
문성인 인권구조과장과 업무관련 환담/곽배희 소장
- 28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 / 김병후 원장
-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률복지와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력협약(MOU) 체결



본부 총 상담 7,213 건

8월

- 8-22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과 수탁기관간 간담회-보호
재판·보호명령재판에서의 협력강화 관련'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9일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임직원 본소 방문
- 22일 출장상담(용강노인복지관)/김진영 상담위원
- 23일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업무협력 회의

- 29일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출연/ 곽배희 소장
- 30일 이화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II' 개강
/곽배희 소장

본부 총 상담 6,671 건

9월

2016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 영상
'꽃으로도 풀잎으로 때리지 마라' 제작, 보급

-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상담원 역량강화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5일 학교폭력예방교육(양산초등학교)/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 9일 학부모대상 법교육(광명 광성초등학교)
/조은경 상담위원
- 13일 동아일보와 명절관련 가족관계 인터뷰/곽배희 소장
- 19일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 내소 및 대한법무사협회지
<법무사>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란에 실릴
본소 창립60주년 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 22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공포'/김병후 원장
조선일보와 본소 창립 60주년 관련 인터뷰
/곽배희 소장
- 24일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서대문복지박람회)



- 26일 학교폭력예방교육(양산초등학교)/권혁채 법무관
- 27일 이화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II' 강의
/곽배희 소장
- 28일 법률구조체험교육(가재울중학교)/조은경 상담위원
- 30일 학교폭력예방교육(양산초등학교)/오동준 법무관

본부 총 상담 6,572 건

10월

- 6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수탁기관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1일 본소 창립60주년 관련 KBS '아침마당' 출연 /곽배희 소장
- 12일 본소 창립60주년 기념식 및 기념 사진전



- 13일 교사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신반포중학교) /최수진 상담위원
- 14일 호주제폐지와 동성동본금혼철폐의 산실로 인정받아 본소 회관에 서울 인권표지석 설치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친권 및 아동학대 법제 개선방안 간담회' 토론/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9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자대상 법교육 /김진영 상담위원
- 20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김병후 원장 학교폭력예방교육(울현중학교)/조은경 상담위원
- 21일 법률홍닥터 가사소송법 강의/김민선 변호사
- 24일 출장상담(용강노인복지관)/오동준 법무관
- 28일 학교폭력예방교육(양산초등학교)/오동준 법무관

본부 총 상담 5,981 건

11월

- 9일 한국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본부 총 상담 6,235 건

- 10일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정기모임



- 11일 법무부 2016년도 제2차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6일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2016년 하반기 정성평가회 참석/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포항시 가족관련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법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양육비산정 기준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4일 정기 후기 이사회 지부위원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외도의 유형과 대처' /김병후 원장
- 25일 변호사·법무관 회의

본부 총 상담 6,002 건

12월

- 2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 9일 중앙가정위탁센터 실무자회의 참석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서울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 참석 /차연실 상담위원 법률구조체험교육(구암중학교) /조은경 상담위원, 권혁채 법무관 법무부 강의/황현정 변호사
- 17일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 18주기
- 22일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김병후 박사

본부 총 상담 6,235 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친밀감, 관계의 유형, 정서적 거리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I. 친밀감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친밀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친밀감은 정서적으로 아주 밀접한 인간관계에 있는 구성원이 서로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와, 일반사람들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에게 잘 하고, 그 외 사람에게는 박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에게는 못하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가장 밀접한 사람은 배우자일 것 입니다. 이렇게 가장 밀접한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친밀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은 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란 가장 공고하고 안정된 관계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여도 가족들은 당사자를 꾸짖어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친밀한 관계의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그런 부모를 자식은 성장하여 보답합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삶의 한 모습입니다.

부부갈등을 상담하다보면, 부부사이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이전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던 부모와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어나면, 아기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도, 혼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엄마의 존재란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 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엄마로부터 느꼈던 따뜻함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배고픈데 엄마

* 2016년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강좌는 2017년에도 계속된다.

가 없다면, 아기는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엄마가 젖을 물려준다면 포만감과 함께 안락감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강력한 기억들이 친밀감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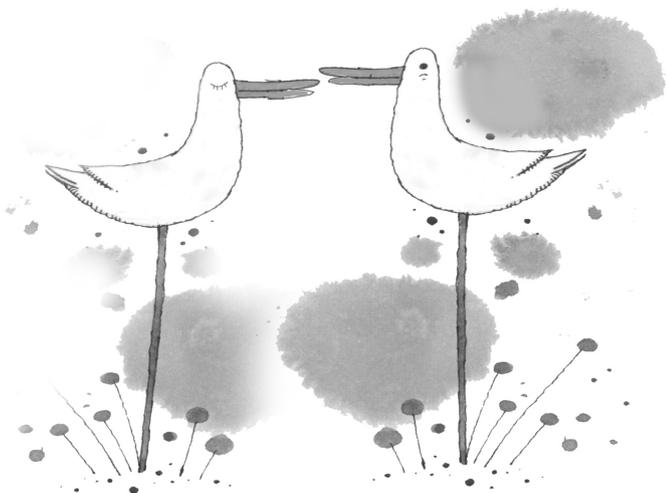
진화론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성장 후 살아가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질 것입니다. 친밀함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느냐의 능력에 따라, 새끼를 기르는 동물도, 일부일처를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동물도 새끼를 기르는 동안만 암수가 같이 새끼를 키우다가, 성장시킨 후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자녀를 성장시키고도 그 친밀한 일부일처 관계를 유지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삶에는 긍정적이지만,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화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감정의 뇌가 있어야 하고, 애착의 호르몬체계가 진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 친밀한 관계인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하루가 멀게 싸우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두 사람의 삶에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자 중 누가 상처를 받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힘든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가 힘든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 모르면서,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것에 속상해 합니다. 사실은 서로가 힘들게 하면서, 그 점은 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는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사랑이 결실을 맺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성은 자손을 번식한다는 관점에 안심하게 되지만 여성은 불안해 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 뿐 아니라 아이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남편이 아이와 자신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매순간 점검합니다. 자신들을 두고 떠날까 봐 불안해합니다. 여성은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 전후에 남편의 관심을 바라고, 계속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반면, 아이의 탄생과 함께하는 남성의 불안은 다른 형태입니다. 아이가 내 아이인지에 대한 확신이 불안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됩니다. 현대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지게 되는 요구가 늘어 나면서, 남성들도 여성들만큼 일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습니다. 친밀한 관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곳곳에 숨어 있는 힘든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Coontz(쿤츠)는 결혼제도에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면서, 역으로 결혼제도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역사 상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가치'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결혼이며, 재산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수단이고, 자손을 함께 낳아 후손을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1850년대)에 이르러 집안보다는 개인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낭만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할 경우, 사랑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혼 할 권리가 도출됩니다. 이는 결과가 말해 줍니다. 1890년경 이혼율은 70%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이 있는 결혼이 시작되면서 결혼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쿤츠는 결혼생활 동안 사랑이 끝까지 꼭 그 강도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결혼생활은 나누고 공유하고 인내하는 '친밀감'에 그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쿤츠는



낭만적인 사랑으로 인한 결혼 보다, 중매처럼 이성적으로 결정한 결혼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두 사람이 친밀하게 산다는 그 '가치'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치보다는 감정에 삶의 목표를 둘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삶의 방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불행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에는 나의 행복이 중요하게 됩니다. 남의 행복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내면에서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충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고 상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연민을 가져야 친밀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연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친절할 사람만이, 자기 연민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힘든 감정을 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피하여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이를 잘 관찰해서, 자기 자신을 더 정밀하게 잘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는 것은 현재 맥락으로써의 자신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으로써의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이고, 과정으로써의 자기란 “그 관계에서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 나”이지만, 맥락으로써의 자기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맥락으로써의 상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 친밀한 관계에서의 나와 상대를 맥락으로써 바라보아야만 왜곡되지 않는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의 핵심은 바로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II. 인간행동의 습득

선행자극 → 행동(반응) → 후속자극(반응의 효과, 강화)물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행동에는 행동을 만드는 자극이 있고,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속 행동(강화물)이 있습니다.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해서, 엄마가 용돈을 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때 용돈이 강화물이 됩니다. 1차적 강화물은 용돈을 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이 생리적, 선천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보상이며, 2차적 강화물은 인정하고 언어로 칭찬해주는 것과 같이 본래는 중성 자극이었으나 일차적 강화물과 연합하여 효과를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특정 행동을 계속할 것 인가의 결정에 강화물이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 준다면, 나는 그 행동을 계속하여 공부를 잘 하던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든,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강화될까요? 아이들은 양육자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행동이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어린 아이의 행동은 양육자의 강화물, 예를 들어 웃어주거나 젖을 주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 강화됩니다. 초기 아동기에 아이가 엄마를 보고 웃으면, 엄마가 이에 대한 자동적 반응으로 마주보고 웃어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의 웃음과 보살핌과 같은 강화물이 아이의 건강

1) 강화 : 행동의 반응이나 빈도, 강도를 유발하고 증가시키는 자극.

한 사회화 관계를 유지 시킵니다. 강화물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아이의 성장 상태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칭찬과 인정을 통해 중기 아동기에는 동성 양육자를 모방하고, 그에 따른 행동에 강화가 주어지면서 성과 성역할, 동성 간의 관계 행동을 배웁니다. 후기 아동기(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양육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게 됩니다. 대신 2차 성장을 거치면서 친구와 이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 때 아이들은 친구와 이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또래집단의 강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회화가 이뤄지면서 부모의 영향에서 친구들의 영향이, 점차 일반 사회에서의 강화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찾아내고 파악하느냐는 개인의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강화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에 의해 자신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주변의 많은 사회적 강화물 중 얼마나 성숙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육자의 강화물은 자녀가 어릴수록 행동에 영향도 많이 미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의 양육자의 개입은 처벌의 형식이 되어 긍정적인 행동의 습득보다는 부정적인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면 '관계틀'이라는 추상적 패턴에 따라 반응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언어를 매개로 낭만적 사랑을 포함한 미묘하고 복잡한 인간 행동의 전 범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III. 관계틀 이론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각은 언어의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통한 사고는 구체적이고, 더 큰 장점은 그 사고가 언어를 통해, 타인들과 객관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

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자체로 인한 구조적인 제한점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직접 보아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와 영희를 직접보지 않더라도 “영희가 철수보다 크다.”라는 언어를 통해 철수와 영희에 대한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한 세계를 언어를 통하여 머릿속에서 무한하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동이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습득하는 관계 패턴은 단어와 대상 간의 상호 관계입니다. 실제 사과와 ‘사과’라는 말이 아동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동이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발음하거나 알아 맞추면 강화가 주어집니다.

아동은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이 같은 형태로 모두 내면화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물은 언어로 인해 자극 기능의 변환이 이뤄집니다. 아동은 언어로 기능전환이 된 것들의 관계틀을 적용시켜 나가게 됩니다. 모든 주변 자극은 언어가 되고, 그 즉시 그 언어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관계적으로 틀을 형성하는 대상과 사건들은 언어적 공동체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지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개는 과자를 주기 전에 ‘과자’라고 말을 하는 조건하에서 훈련을 시켜야 ‘과자’라고 말 할 때 침을 흘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자를 주고 그 후에 ‘과자’라고 말해도 조건화가 이뤄집니다. 양방향으로 조건화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관계틀은 인간 언어를 특징짓는 과정이 되고, 관계틀은 인간인지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생각을 통해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왕따를 경험했던 사람은,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도 적용시킵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도 있다고 생각하며 아파합니다. 현재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형성된 관계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이 언어가 매개된 관계틀로 사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에 의한 아픔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배우자의 과거문제를 현재의 문제로 적용하며 상처받습니다.

신혼 초기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여성은 수십년이 지나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배우자는 과거의 배우자와 맥락이 변화했으므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언어를 통하여 사고의 관계 틀을 만든 것은 굉장한 장점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맹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 때는 다르지만, 언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에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과정으로서의 나와 배우자가 아닌, 현재의 나와 배우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머릿속의 대부분의 사고는 언어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에 나-너, 여기-거기, 지금-그때와 같은 시점언어를 사용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나”라는 것에는 과거의 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을 겪을 때의 나도 있으며, 현재 시점의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대부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거야’ 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나’가 ‘그때’, ‘거기’에 있는 ‘너’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그렇게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밤새 안녕하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기술에도 혼용은 이뤄집니다. 내용으로써의 자기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나가 모두 포함됩니다. 과정으로서의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의 자기입니다. 맥락으로써의 자기는 여기의 현재 시점의 나를 이룹니다. 언어상의 타인도 3가지 형태의 타인이 있습니다. 내용으로서의 타인은 개념화된 타인입니다. 과정으로써의 타인의 관점을 받아 들인다면 공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맥락으로써의 타인은 현 시점 여기에 있는 타인입니다. 맥락으로써의 타인을 받아 들이는 것이 공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IV. 규칙 지배적 행동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규칙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세상의 복잡한 상황에서 반복되고 정형화된 일련의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정됩니다. 이를 행동학적으로 말한다면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언어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정해지기만 하면 그 후의 행동을 조절하는 지속적인 원천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중학생은 화장을 진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복을 입어야 한다’와 같이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변화하는데, 과거에 정해진 규칙에 맞추려고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의 경우 자신의 규칙과 틀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이 틀에 맞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이 틀에 맞추려고 하면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학생은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해.”하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강압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규칙이란 것 때문에 친밀감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우선시하고, 규칙은 조금 미뤄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에 의해 지배당해 관계를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규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규칙이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V. ‘친밀함’이란 가치

결혼 초기에 부인과 단 둘이 있는 것이 어색했었습니다. 데이트 할 때 어색하여 나도 모르게 친구를 불러 충돌이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았기에, 관계 속에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나, 부친과 모친도 나를 어려워했습니다. 부친도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아, 아들과의 관계를 어색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딸을 키우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딸은 자기가 어릴 적 아빠가 안아줄 때, 아빠가 자기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계속 팔의 위치를 바꿔준 것이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어린 시절 동물을 키울 때 동물들이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가 새끼를 내 무릎 사이에서 낳은 적도 어렵듯이 기억이 납니다.

딸은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한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거실에 있는 아빠 옆으로 와서 자는 것입니다. 그 후 부인과 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등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딸의 친밀한 행동이 아빠를 변화시킨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나 아들에게 그 친밀한 행동을 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성향은 있었지만, 당시 부모의 무거운 교육과 연관되어 친밀함이 발휘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친밀함은 가치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과 경험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삶에 필요한 정서적 친밀감, 신체적 친밀감, 성, 감정, 동지애, 지적 자극, 활력 등의 후속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과 애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지애 지적자극 성적 친밀감은 사랑과 우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친밀함은 가치이기에도 도달 할 수 없습니다. 친밀감만 우선하면 다른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관계에서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처음 보는 관계에서도 대화를 잘 이어나갑니다.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반면, 남성들은 친밀한 관계를 어색해 하고 그래서 서열에 익숙한 권위적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남성들이 집안에서 권위적 행동을 하지만, 사실 그 속은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할 것인지, 내가 모르는 것이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위적인 행동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구성원들이 반항하면 어떻게 할지를, 불안에 떨며, 위엄을 세우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종종 “들만 합시다.”라고 말하며, 친밀함 이외의 가치들을 너무 뒤로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밀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가치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가치(일, 여가, 돌보기, 가족, 지역사회 관여, 영성, 교육

과 발전, 건강과 사회적 관계 등)들도 친밀함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해 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지는 않지만 개개인들은 가치마다 다른 중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 가지고 있는 균형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깨지게 되면 삶은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자신 뿐 아니라 상대의 삶의 가치를 서로 알아 타협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잘못되면, 두 사람 모두 전반적인 생활 모두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일의 가치만을 중시해서 다른 가치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일은 그냥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영원적인 가치는 친밀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늘 인간에게 따뜻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상처받는 느낌도 허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VI. 결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자신을 안정시켜줍니다. 친밀한 관계가 가져다주는 안정감 때문에, 이를 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도나 이혼의 결정은 관계 속 문제를 잘 풀지 못하여 그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며, 힘들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같이 사는 것과 친밀한 관계없이 사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규칙적 기준이 많을수록 관계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내 옆에 같이 있어 주지만 해도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법이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학력, 돈, 무한한 애정 등을 바랐다면,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더더구나 친밀함을 목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 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번져 모녀 사이 폭행으로 상담위탁 결정 되었으나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통해 가족 관계 회복해

사건번호 2015버1***/2015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어머니) 개별상담 7회, 교육강좌 1회,
부모집단상담 3회, 자조모임 3회,
부부캠프(배우자와 함께) 1회,
행위자(딸) 개별상담 5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2. 24. ~ 2016. 5. 20.

상담경과

행위자 두 사람은 모녀간으로 2015년 6월 사건 당일, 어머니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보는 동영상의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딸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어머니를 바닥에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어머니도 딸에게 욕설을 하고 딸을 바닥에 내리치는 폭행을 하여 두 사람 모두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후 어머니는 배우자와 딸로 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수시로 듣다가 딸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집을 나와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며 직장에 다녔다. 딸은 성적과 희망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모녀가 함께 상담을 받을 의사가 없는데다가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사람을 분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배우자로 부터 폭행과 무시를 당

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이 자폐아로 큰 아이에게 못해주었던 바를 둘째인 딸에게 다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딸이 되었다고 하였다. 배우자는 아내가 버는 수입을 다 가져가면서 자녀들에게는 카드를 통째로 내주어 쓰게 하는 등 무절제한 훈육을 하였고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자녀 편만 들어 자녀양육문제로 부부 갈등이 심하였다.

딸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많이 혼내고 욕을 하였으며 때렸다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욕을 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지만 잘못이라고 인정하였고,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전과 달리 가족을 배려하고 가사를 돌본다면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2016년 3월 초,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이혼하자는 배우자의 문자를 수회 받은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차 집에 들어갔으나 배우자가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청하는 데다 이웃 주민들로 부터 자신의 부재중 큰 아들의 문제행동을 전해 듣고 마음을 돌려 배우자와 재결합하였다. 부부는 1박 2일의 부부캠프에 참여하였고, 배우자의 아내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변화하면서 부부관계가 개선되었으며 가족구성원의 화합에 원동력이 되었다.

부부 관계가 개선되자 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는데,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자 딸은 순해졌고 어머니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본분을 다하며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찾게 되었으며, 전과 달리 딸에게 용돈도 직접 주게 되었다. 어머니는 상담과정에서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았으며, 무조건 딸 편만 들던 배우자가 변화되어 모녀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등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모녀 모두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고 분노조절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향후 폭력 재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건번호 2015버2*** /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4회, 교육강좌 1회,
부모집단상담 2회,
행위자(아들) 개별상담 4회, 교육강좌 2회,
자녀집단상담 7회,
아버지와 아들 상담 2회, 교육강좌 6회,
아내(어머니) 개별상담 1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2. 14. ~ 2016. 6. 3.

상담경과

행위자 두 사람은 부자간으로 2015년 9월 사건 당일, 아들의 직장문제로 시비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 뒤통수와 입 부위를 치는 폭행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아들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입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여 두 사람 모두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상담위탁 후 아버지는 바로 상담에 임하였으나, 아들은 사건 발생 후 한달이 지날 무렵 자해를 한 일로 정신과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어서 퇴원 후 상담에 임하였다.

아버지 자신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사업 부진으로 아들을 빈곤한 환경에서 키운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버지상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아들은 사춘기 시절부터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졌고,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가족 안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는 아들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엄하게만

대하는 아버지였고, 자신은 생각나지 않은 작은 일도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엄한 아버지'가 아닌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자상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간 결과 아들도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었고 거칠었던 아들의 말투가 온순해졌다. 상담 종결 즈음, 아들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남성의류매장을 열게 되었다.

종결상담에서 부자 모두 현재의 상태가 매우 편하다고 만족감을 표하였다. 특히 아버지는 상담 초기에는 아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였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네 식구가 같이 밥을 먹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부부상담 4회, 부부교육강좌 2회, 부부집단상담 7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2. 14. ~ 2016. 6. 8.

상담경과

행위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이혼 후 10개월째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다. 행위자는 2015년 9월 사건 당일,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서랍장과 칼을 던지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시 행위자와 피해자는 함께 상담에 임하였으며 피해자는 임신 8주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임신이 부부의 재결합 의사를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부부는 상담 중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휴직을 하고 행위자와 함께 상담에 참여하였다. 부부는 좋은 엄

마, 아빠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좋은 부부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다보니 사사건건 다투는 일이 잦았으며, 특히 행위자는 분노조절이 잘 안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본 사건에서 칼을 던지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맞서 소리를 지르고 행위자와 몸다툼을 하면서 끝을 보려는 태도로 부부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다행히 평소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다가가는 말투를 구사하여 대화가 폭력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상담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한 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지만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상해졌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겼으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피해자 스스로는 갈등상황에서 time-out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폭력적인 성행이 개선되었고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행위자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해하였고, 피해자 역시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50점으로 평가한다면 현재는 80점 정도로 평가하면서 만족해하였다.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2회, 부모집단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배우자 전화상담 1회 등 총 20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2. 15 ~ 2016. 6. 29.

상담경과

행위자는 2015년 9월 사건 당일, 주거지 내에서 늦잠자는 피해자1(아들, 15세)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

닥으로 피해자1의 뺨을, 효자손으로 얼굴과 어깨를, 식칼 칼자루로 왼쪽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2(딸, 13세)의 배를 효자손으로 1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행위자는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6남매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나뉘어 성장하였고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신의 아픈 어린 시절 때문에 절대로 부모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녀를 혼육한다는 명분으로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상담초기 자녀에게 폭력을 한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행위자는 이를 통하여 직업상 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녀와 대화할 때 짜증을 먼저 냈고 일방적으로 할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상담에 참여하면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들의 기준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였더니 아들이 자신의 옆에 자주 온다며 앞으로 좀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원하던 강아지를 기르게 된 후 강아지가 가족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고 대화가 늘었다. 행위자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만 했는데 자신도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상담 종결 즈음에는 아이들이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여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하였다.

배우자에게 행위자의 그동안의 생활과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건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혼육을 빙자한 어떠한 폭력도 하지 않았으며, 행위자와 자녀들과의 사이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배우자는 이전에 비하면 행위자의 음주문제와 폭언 문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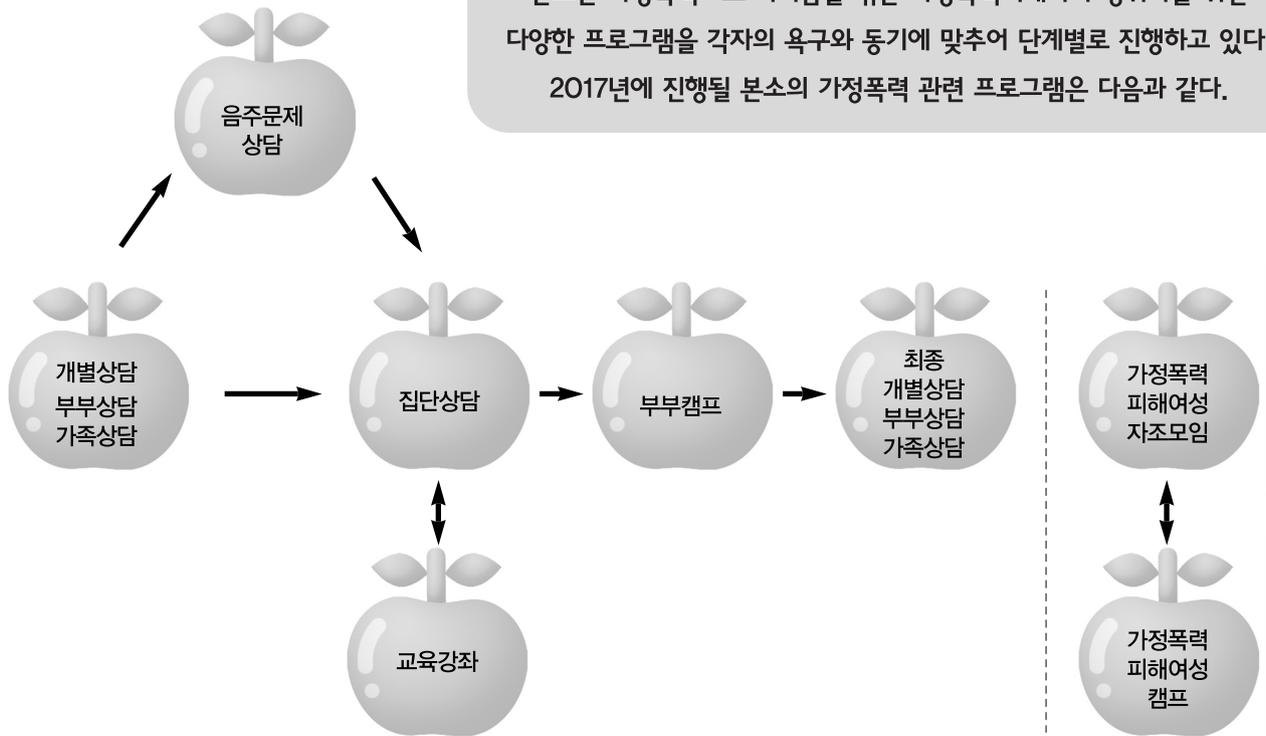
행위자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비폭력적인 의사소통에 대하여 인식하고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함으로써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화가 났을 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2017년도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본소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방안 모색

- ▶ 일시 : 연중
-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
- ▶ 진행 : 본소 상담위원

날짜	1회 : 2/20, 2/27, 3/6, 3/13, 3/20, 3/27 (6회기) 2회 : 4/3, 4/17, 5/1, 5/15, 5/29, 6/12 (6회기) 3회 : 9/4, 9/18, 10/2, 10/16, 10/30, 11/13 (6회기)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 일시 : 연 3회(각 6회기)
- ▶ 대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 진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II.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공유



- ▶ 집단상담 ①
-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상 : 가정폭력 행위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정윤경 교수

- ▶ 집단상담 ②
-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9시30분
- ▶ 대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배우자(부부)
- ▶ 진행 : 정윤경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 집단상담 ③
- ▶ 일시 : 필요시
- ▶ 대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IV. 등지교실 : 교육강좌



캐서린 한 대표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캐서린 한 대표,
한승희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정	강의제목
2월 9일	부부 사이의 대화, 어떻게 잘 할 것인가? :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
3월 9일	성인 자녀와의 대화, 어떻게 잘 할 것인가? : 따로 또 같이 (독립과 상호의존)
4월 13일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 어떻게 상호 존중의 협력적 관계를 맺을까?
5월 11일	부부 사이에 소통을 방해하는 오래된 습관을 공감으로 바꾸기
6월 8일	성인 자녀와의 대화 : 후회에서 배우기, 용서 구하기
7월 13일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 : 강요에서 부탁으로
8월 10일	성인 자녀와의 대화 : 감사한 마음을 주고받기
9월 14일	부부 사이의 대화 : 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10월 12일	사춘기 자녀가 "싫어"라고 말할 때
11월 9일	자기 강요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12월 14일	축하와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기

V.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 ▶ 일시 : 연 3회 (2017년 3월 25일~26일 / 7월 22일~23일 /
11월 11일 ~ 12일)
- ▶ 대상 :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누구나 참석가능
(선착순 20쌍 모집)
- ▶ 신청방법 : 사전신청 필수
-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VI. 라오니 모임(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장희숙 교수

- ▶ 일시 :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 진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VII. 라오니 캠프(가정폭력 피해여성 캠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1일 캠프

- ▶ 일 시 : 12월 2일 (토) 오전 10시 ~ 오후 7시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 신청방법 : 사전신청 필수

VIII.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상담을 통한 변화 등 확인, 향후 계획 수립 및 점검

- ▶ 일시 : 연중
- ▶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
- ▶ 진행 : 본소 상담위원



Q

얼마 전 남편이 저와 뱃속의 아이를 남겨두고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빚을 많이 남겼고, 이에 저는 한정승인을, 시부모님들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도 별도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A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0조의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

여야 상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참조). 따라서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만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다녀 와서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있던 구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법률구조 체험교육 후기를 발췌, 요약하여 실는다.

양 형 옥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혼, 가정폭력, 재산관련 법적 문제들을 무료로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곳으로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박사가 세웠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동영상 통해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다고 느꼈고 이 기관이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진행한 모의재판은 변호사, 가해자, 증인 등이 나와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이야기하고 재판자의 판결로 결론을 짓는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모의재판은 대본이 있어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실제라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의견 충돌도 있고 치열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과정을 본 것이 처음이라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욱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마냥 딱딱하고 우리 생활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방문해 보니 가정, 학교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되도록 가정 내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기관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견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박 태 영

이번 1학년 자유학기제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구조체험은 여태까지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신선하면서 우리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일에서도 나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무엇을 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법에 대한 구조를 알려주는 체험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상이상으로 더욱 대단한 곳이었다.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등 무료로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멋진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나에게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누군가는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 가거나 통화, 상담 등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전해져 그 일이 잘 해결 된다면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또한 모의재판을 통해 실제 법정에서의 일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다.

신 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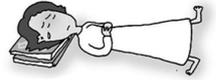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모의재판을 해보았다. 주제는 학교폭력 이었는데, 힘이 센 한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혀 자살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맡게 되었는데, 실제 재판은 아니었지만 정말 변호사가 되어본 것처럼 생생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이 채 연

특히, 나는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이태영' 여성 최초 변호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타깝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를 알게 되었고, 수업을 해주신 분들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셔서 좋았다.

정 세 진

법률 상담소라고 해서 조금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오히려 훈훈했다. 교육을 마치고 모의재판을 했는데 나는 장래 희망이 검사여서 역할을 해 보고 싶었으나 가위바위보에 져서 재판장을 맡게 됐다. 대본 리딩도 한 번 해보고 웃도 갖춰서 입어 보니 더 실감이 났고 무엇보다 마이크로 내 목소리를 크게 들어서 매우 색다른 것 같았다. 직접 재판 장 역할을 해본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값진 경험이자 교육이었던 것 같다.



글 | 그림 | 장차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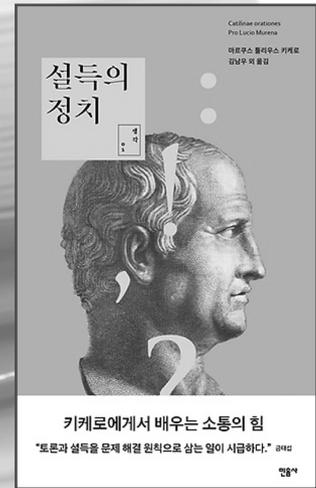
새해 희망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 세상이길 바라본다.



설득의 정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김남우 외 옮김
(주) 민음사, 2015

“카틸리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인내를 남용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광기가 우리를 조롱할 것인가? 어디까지 당신의 고삐 풀린 만용이 날뛰도록 놓아 둘 것인가?”

- 카틸리나 탄핵연설 중에서

일 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펴보았다. 기원전 로마 최고의 웅변가이자 문인, 정치지도자였던 키케로의 연설집 『설득의 정치』다. 이 책은 ‘존속살해 : 로스키우스 변호연설’ ‘양민수탈 : 베레스 탄핵연설’ ‘내란 음모 : 카틸리나 탄핵연설’ ‘선거부정 : 무레나 변호연설’ ‘시민권 옹호 : 아르키아스 변호연설’ ‘정당방위 : 밀로 변호연설’ ‘국기 문란 : 필리포스 연설(안토니우스 탄핵연설)’ 등 7개의 연설 모음집이다. 이미 기원전 로마 시대의 정치사가 21세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 말고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만연체의 문체여서 솔직히 살짝 지루하게 읽은 책이었다. 그런데 읽을 무렵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 올 줄이야.

텔레비전의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서 유럽 대륙 곳곳에 남겨진 로마제국의 흔적들을 보면 아득해질 때가 있다. 기원전에 그러니까 최소 2천 년 전에 만든 수도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남긴 도로들,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 그리고 공화정, 로마법 등.

기원전 106년에 태어난 키케로는 기원전 63년 로마 최고 정치지도자인 콘술로 활동했으며, 원로원 중심 체제를 옹호하여 황제가 되려는 카이사르의 야심을 로마 시민들에게 폭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기원전 56년 이후 키케로는 정치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며 저술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달랬고 명저들을 남겼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그에 못지않은 독재자 안토니우스가 정권을 잡고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자,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과감히 그를 국가의 적으로 선언하려 애썼으나 안토니우스가 보낸 군인 자객들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 책 『설득의 정치』는 마지막 로마공화정을 이끌었던 키케로의 연설문을 모은 것으로, 후대의 연구자들은 키케로가 플라톤의 정치철학 저작을 모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로마인의 관점’에서 로마 공화국의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수사와 반복이 많다는 느낌이 있지만, ‘지시 대명사’로 채워져 해독이 불가능한 문장을 구사하는 누군가의 신년 기자 간담회를 전해 들으며 2천 년 전 로마 공화정의 열띤 토론문화가 그리워지는 이 심정은 새해 벽두부터 참담하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소·식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해 12월 30일 전 직원이 함께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가졌으며, 2017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가지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소 광배희 소장은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특히 2016년 창립 60주년의 해를 보람차게 보낸 직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했고, 시무식에서는 “법률구조 사업의 사회적 의미를 깊이 새기고, 변함없이 업무에 충실하며 아울러 직원들과 직원 가정 모두 건강한 한 해를 보내자”고 격려하고 당부하였다.



이태영 선생님 18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방문

2016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18주기를 맞아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에 조출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광배희 소장과 몇몇 직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묵념을 올리고, 상담소 회관 1층 이태영 선생님 부조 앞에 헌화하였다. (관련사진 2면)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겸 직원 재교육

지난 2016년 12월 2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상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재교육을 겸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 및 교육은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용 교수의 ‘친권자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개시 여부’ 배인구 판사의 ‘유류분 제도의 재조명’ 현소혜 교수의 ‘친생추정 규정 개정안 검토’ ‘GPS 시스템을 이용한 가정폭력 예방 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상담 현장에서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라오니 캠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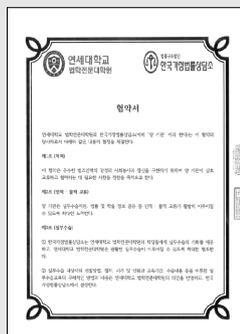


본소에서는 2004년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을 신설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월 1회 모임에서 확장한 캠프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심리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오니 모임'은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순한국말로, 힘들었던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 평등한 부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지난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상담소에 모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17명에게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은 본소 소개 및 라오니 캠프의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어서 우애령 박사의 '나의 이해, 가족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뮤지컬 '팬텀'을 관람하였는데, 문화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가회 시간을 가졌는데, 참가자들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분노,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에 큰 의미를 두었으며, 공동체 나눔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담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 체결

본소는 12월 14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정오)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과 사회봉사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에 따라 1월 9일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본 상담소 실무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12.14.(수) 구암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와 가족법개정운동에서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한 영상시청과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온라인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권혁채 법무관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학교폭력을 주제로 강신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역할을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공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온라인상 게임과 SNS를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강의와 친구들이 직접 연기하는 형사재판을 관람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와 형사재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교육 후기가 있었다.(관련 사진 2면)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12월 22일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 치료"라는 주제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본 강좌는 부부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과 그 대처 방법을 개별 주제별로 1년 동안 11회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강의는 올 해의 마지막 강의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58명이 참석하였다. 강의 후 가벼운 다과시간을 통하여 1년간 열심히 수강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부부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원인 진단부터 행동교정, 심리 치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나누며 한 해 강좌를 마무리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장실습

양예지 (동국대학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정근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출장법교육

12.19 법률홈닥터 대상 가사소송법 강의- 법무부
황현정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14일 서울가정법원 합의부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2월 13일과 23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였다.

곽배희 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2월 6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송년모임에 참석했다. 7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 재판소 자문위원회와 이어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2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심무순,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영주, 김지후, 김태주, 김현임, 김형석,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이지선, 이혜민,
전현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심미숙, 이승주, 장주용,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빈대린,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수민, 박남주, 박주연, 신수현, 윤세혁, 이민주,
이현지, 이혜진, 장윤서, 전유진, 정주은, 황지혜,
김소희, 곽민주, 김우람, 손서영, 손준호,
여에스터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12월 6일, 9일, 20일,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과 가사조기개입 상담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12월 6일, 12일, 13일, 19일, 20일,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12월 1일, 7일, 8일, 9일, 15일,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6일~1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주관으로 2016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힐링캠프 “동행”을 진행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출장상담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2월 10일, 17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윤준상, 허노목, 박태영,

박경로, 김영심, 임경, 전상훈, 조은희, 이정민, 도낙희, 이태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계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9회, 광주지법원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6회 실시하였다. 2017년 성남지원 후견 복지 담당 위촉·지정식 및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한승일, 공영서, 송지민, 김민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울산지부

12월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으로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3회 실시하였다. 12월 6일 수원지부 송년의 밤 행사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었고, 엄익수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사업단장이 제 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강은혜, 김현명, 김현주, 박지훈(성남), 서정식,

양승철, 임용호, 장미애, 전태우, 최유나, 한두환, 한승일, 홍성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12월 1일, 6일, 9일, 19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8일 전주지부 창립 28주년 기념 자축연을 가졌다. 29일 김영수 상담위원이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지부

황인철, 박현민, 백신욱,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12월 6일 변호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12월 7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홍강오, 백경석, 박인욱, 이창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지부소장 새해인사



구리·남양주 지부
정민영 소장

입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되다
-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서

너무도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가고 그
래도 희망을 꽃피울 2017년이 밝았습니다.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노력해
왔던 1년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도 번민하
는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평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구리·남양주 지부가 되겠습니
다.



대구 지부
유연희 소장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
申年)이 저물고 정유년(丁酉
年)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소외되
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무료법률구조사
업을 진행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
정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 및 부모교육 등
을 시행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지
역사회 및 국가에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
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부천 지부
한혜빈 소장

2016년 한 해 혼란스러
운 국내외의 상황 속에서도
전국 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상담위원님들 번민하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밝은 2017년에도 “가정을 평
화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
리 상담소들의 작은 노력들이 전국에서 모
아져서, 이땅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
며 사랑으로 하나되는 힘을 길러갈 수 있도
록 그래서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며 든든히 세워져가
는 가정 가정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뚝 세
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2017년에도 우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파이팅입니다!



성남 지부
이정숙 소장

눈 덮인 겨울들판에 오래
된 감나무 한그루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빛나는 선홍색 홍시 몇
개. 그건 새들을 위한 농부들의 배려입니
다.

새해를 맞는 지금 천둥, 번개, 비바람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가꾸겠습니다.

홍시를 남긴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 가정
법률상담소 가족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
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원 지부
박윤선 소장

지난해. 우리 모두는 참
으로 우울했습니다. 마치 산
소 결핍처럼 도시의 밤은 우리 모두의 가슴
을 답답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우리의 지성은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엄정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
어 신뢰와 소통,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
꾸며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과한 희망이나
기대는 아닐 것이라 확신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한 단계 더
욱 진화된 새로운 기대를 걸어 봅니다.

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들께 건강과 좋은 소식들 가득하시
길 기원 드립니다.



순천지부
유숙영 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지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자
원봉사자, 후원회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상담소에 대한 깊
은 관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에도 번민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이웃을 먼저 생
각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모두가 행
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익산 지부
김성란 소장

2016년은 ‘가정의 평화
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
화’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

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7년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새해를 맞아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는 상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찾아서 작은 위안을 얻고 삶의 희망을 찾으신 분들과 상담소에 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지부
박희경 소장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여 저물어 가는 丙申年에게 서둘러 인사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본 상담소는 인천지역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여 위기 가정의 해체를 막고, 법률구조 사업에 힘써 왔으나,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소장을 역임하신 전 윤신자 소장님의 영면 소식도 본 상담소에는 슬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닭의 해를 맞아 새 희망을 가져 보며,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어나 함께 도약한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두 가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늘 조력자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해 보면 늘 건강하시기를...



전주 지부
유순금 소장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어둠 속에서 우렁찬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상서로운 가축이라고 합니다. 새 아침을 여는 붉은 닭과 같이, 새로운 희망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2017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도 사회적 약자와 번민하는 이웃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신 전국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 여러분들과 상담소의 활동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보다 밝은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전주지부가 될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제주 지부
염순정 소장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2017 정유년 새해에는 하루를 지내고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구 지부
제오복 소장

2016년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법률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라는 (재)양심회 표어를 실천하는 한 해였습니다.

밝아오는 2017년 힘든 내담자들이 희망의 빛을 느낄 수 있는 방문하고 싶은 상담소, 따뜻하고 편만한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존중의 경험으로 개인, 부부, 자녀, 가족, 직원 모두 행복한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진주 지부
조순덕 소장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추억 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 함께하는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 오신 진주지부의 이사님, 자원봉사자님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정유(丁酉)년 새해 진주지부는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원마산 지부
서정희 소장

희망은 가장 버림받은 곳에서 싹튼다고 하였고,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지난해였으나 그러하기에 올 한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부
최은숙 소장

소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상담소는 어려운 분들에게 든든한 믿음과 배려,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드리는 곳이 되자고 새해 아침에 다시 다짐합니다.

개울에 놓여있는 디딤돌과 같은 상담소! 그 디딤돌을 밟고 개울을 건너 다시 힘을 내고 나아가게 해드리는 그런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11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153건으로 본부가 6,002건, 지부가 6,151건이었다.

본부는 5,471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05건·소장 등 서류작성 175건·소송구조 51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444건·화해조정 664건·소장 등 서류작성 32건·소송구조 11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47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3.4%→24.6%), 위자료·재산분할(10.5%→11.1%), 친권·양육권(5.4%→6.7%), 양육비(6.6%→6.8%), 친생부인(1.1%→1.2%), 입양(1.3%→1.4%), 가족관계등록부(2.7%→3.5%),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4.9%→5.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가 0.4%로 가장 많았다.

본부의 법률상담 5,47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32건(22.5%), 전화상담 3,984건(72.8%), 통신 및 인터넷상담 254건(4.7%),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6년 12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235				
법률상담 (5,648)				
면접	전화	통신	순회	지상
1,152	4,258	210	27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70		176		41

* 2016/1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3,183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002	1,232	3,984	254		지상 1	5,471	305	175	51
강릉 (033) 652-9555	158	147	10				157	1		
거제 (055) 633-7636	279	276	3				279			
광주 (062) 672-6011	60	31	29				60			
구리·남양주 (031) 551-9976	155	60	53				113	40	2	
군산 (063) 442-1560	98	36	52				88	10		
대구 (053) 745-4501	424	176	5	1		출장 138	320	104		
대전 (042) 520-5258	243	44	196				240		3	
제주 (064) 753-9421	206	56	148				204	1	1	
동해 (033) 535-0188	89	48	41				89			
목포 (061) 273-2514	125		125				125			
부천 (032) 667-2314	299	52	155				207	92		
성남 (031) 707-6661	346	217	70				287	55	4	
수원 (031) 243-4600	433	165	115			출장 76	356	77		
순천 (061) 753-9910	160	52	100				152	7	1	
충구 (02)2238-6554	447	215	231				446		1	
안동 (054) 856-4200	73	16	28				44	29		
울산 (052) 246-9568	146	31	111				142		4	
익산 (063) 851-5113	250	81	159			출장 5	245		3	2
인천 (032) 865-1120	292	136	133				269	20	3	
전주 (063) 244-2930	555	212	69	214	60		555			
정읍 (063) 535-3705	86	15	68				83	3		
진주 (055) 746-7975	114	28	44				72	37	5	
창원·미산 (055) 261-0280	236	99	83				182	52	1	1
청주 (043) 257-0088	246	54	81				135	107	4	
춘천 (033) 257-4688	192	35	11			출장 120	166	26		
태백 (033) 554-4004	127	74	35			출장 18	127			
평택·안성 (031) 611-4251	104	43	53			출장 1	97		7	
제천 (043) 644-5690	137	39	97				136		1	
포항 (054) 283-7555	71	17	51				68	3		
지부총상담	6,151	2,455	2,356	215	60	출장 358	5,444	664	32	11
총 상담	12,153	3,687	6,340	469	60	출장 358 지상 1	10,915	969	207	62

**2016/1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9,763건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판결

법률구조 2014-351

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3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20세)과 사건본인2(여, 13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폭력으로 2010년 11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사건본인1은 상대방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원 아동센터에 입소한 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우산과 각목을 사용하여 사건본인2를 폭행하여, 이로 인해 사건본인2는 뇌진탕 등의 소견을 받았다. 사건본인들은 112 신고를 통해 겨우 청구인에게 인도되었고, 이때부터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8.5.)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8.6.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국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법률구조 2015-470

담당 : 김종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53세)는 2008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8년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의 자녀 사이의 다툼이 심해 원고가 그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피고는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욕설을 하며 밥상을 뒤엎거나 식기건조기를 집어던지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는 등 살림을 부수는 일도 잦았다. 원고는 피고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상을 입혔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전가정법원 2016.8.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8.부터 2016.8.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록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6-90
담당 : 김영길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5세)과 피신청인(남, 40세)은 2009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6세)을 두었으나, 2013년 4월 조정을 통하여 이혼 하였다. 이혼 조정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4.부터 사건본인이 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 후 양육비를 불성실하게 지급 하였고, 2015.6. 경에는 양육비 지급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60만 원을 빌려간 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비 지급 또한 중단하였다. 신청인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며 월 150만 원의 소득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신청인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했으며, 더욱이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6.8.1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드단*****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6. 3.까지 미지급된 양육비 중 3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16. 9.부터 2017. 1.까지 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가족 부양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5-554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1세)은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2012년경 공사장에서 일하다 4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기억상실 장애 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이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일을 하기 어려워져,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또한 기존에 저축했던 돈만으로는 아버지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기에 어려웠다. 할 수 없이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았다. 게다가 신청인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 자금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생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야로 일하였으나, 귀가하는 길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1년 반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더욱 소득이 없어졌고, 불어나는 이자에 부담을 느낀 신청인은 또 다시 제3금융권과 사채를 끌어다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부상당한 허리와 발목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7.)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과거양육비 지급 등 판결**

법률구조 2015-296
담당 : 손명숙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7세)과 상대방(남, 50세)은 법률상 부

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8세)을 두었으나, 2001년 6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직전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누나들이 청구인의 친정집을 찾아와 양육비를 주지 못하니 사건본인을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워, 사건본인을 데려갈까 두려웠던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학원에 거의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가르쳤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잠깐씩만 일할 수 있었고,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았다. 형편이 점점 나빠져 청구인은 두 차례나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신용회복 절차를 밟아야 했다. 또한 고등학생인 사건본인이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학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창원지방법원 2016.8.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8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5. 9. 1.부터 2018. 6. 15.까지 매월 700,000원씩을 각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5-346
담당 : 김균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8세)과 상대방(남, 39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3세)을 두었으나 2009년 1월경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전, 청구인과 상대방은 매

월 양육비로 6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2008년 10월에 공증 받았다. 하지만 약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0년 5월경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2010년 7월, 위 청구를 취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매월 40만 원을, 201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다시 약정하여 이를 공증 받았다. 이후에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2회에 걸쳐 다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2014년 5월까지 구두로 약정한 양육비 55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하지만 2014년 6월부터 상대방은 또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득이 없던 청구인은 이로 인해 사건본인을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였고 대출을 받아 힘들게 생활하여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인천가정법원 2016.7.2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6.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양육비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5-388
담당 : 김덕은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39세)과 상대방(여, 31세)은 2011년 1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5세, 쌍둥이)을 두었으나, 2011년 1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

으며, 양육비는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혼 후 청구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지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더 이상 사건본인들을 부모님께 부탁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었고, 월수입은 120만원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사건본인1이 ADHD 판정을 받고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어 더 이상 혼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오랜 기간 백화점에서 일하며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광주가정법원 2016.8.2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9.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사건본인 1인당 325,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매월 2회 4시간씩
 - 나.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 다. 날씨는 상대방의 휴무일에 맞춰서 쌍방이 협의하여 매월 25일에 정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에 대해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5-417

담당 : 박효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신고 등

내용 : 청구인(여, 55세)은 사건본인(여, 8세)의 외조모이다. 청구인의 딸인 청구 외 망 이**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2012년 11월 23일 사망하였다. 상대방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양육에만 신경을 썼을 뿐 사건본인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현재 청구인은 나라해서 보조해주는 수급비와 청구인이 조금씩 버는 돈으로 사건본인과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 양육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길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9.2.)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가. 이 사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전남편에 대해
감치 10일 결정**

법률구조 2015-465

담당 : 한은석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여, 40세)과 피신청인(남, 39세)은 2002년 10월 혼인 후 슬하에 사건본인들(11세, 10세, 7세)을 두었으나 2012년 12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본소의 법률구조를 받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이행명령 위반

에 따른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결정 (인천가정법원 2016.9.2)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1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OO구치소로 정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5-482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7세)과 상대방(남, 38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8세)을 두었으나, 2000년 8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2001년 10월 이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4년 1월 청구인이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더 두었지만, 2013년 10월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세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게 되었다. 현재까지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건본인의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9.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77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6. 9. 2.부터 2016. 10. 30.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지병으로 장애를 입어 대출금변제를 못하게 된
신청인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5-571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2세)은 2009년경 피부 관리실과 건강식품 판매점을 시작하여 5년간 운영하였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11월 뇌병변 및 당뇨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2달간 입원하였고, 왼쪽 편마비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신청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되었고, 현재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월 48만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신청인은 채무에 대한 변제는 어려운 상태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30)

채무자를 면책한다.

**20여 년 전 가출하여 연락을 끊은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49

담당 : 선형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1세)와 피고(남, 74세)는 1974년 4월 혼인하였으나, 피고는 1995년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다가 1996년 경 가출하였다. 1999년 경 원고는 피고가 택시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의 고등학교 등록금이라도 부탁해 보려고 피고와 잠시 만났지만 피고는 알겠다는 답변만 한 후 회사를 옮겨 버렸다. 이후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8.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6-122

담당 : 김형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58세)는 1996년 8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9세, 남 7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음주가 잦았고, 화가 나면 원고를 구타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사건본인1이 폭행을 말리면 사건본인1마저 폭행하였다. 원고는 폭행을 피해 사건본인들과 함께 친정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9.8)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소)를 각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1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2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1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일정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5: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 설, 추석 연휴기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1박 2일(명절 당일 포함)
- 사건본인1의 여름, 겨울방학기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1주일간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식을 조절,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1의 의사 및 일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신청인에 대해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률구조 2016-162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회생

내용 : 신청인(남, 38세)은 2007년경부터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하여 옷 가게를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지만,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 및 운영자금을 메꾸어나갔지만, 가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고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리업체 대표로 일하였지만 이 또한 잘 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한 백화점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며 월 130만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가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7)

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2017년 1월 교육부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사전예약 필수)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이혼전 1단계 참여자, 사전예약 필수)
 - ▶ 일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월 9일,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1월, 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내(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2월 23일(목)	부부 갈등의 분석과 진단
3월 23일(목)	뇌의 속성과 다름
4월 27일(목)	마음의 구성과 감정
5월 25일(목)	관계의 뇌와 사랑
6월 22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7월 27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2017년 초·중·고등교사직무연수

1.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2. 연수 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3. 대상 및 인원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40명
4. 연수 일정 : 2017.1.10.(화)~1.12(목) 10:30~16:30(1일 5시간)
5. 이수 시간 : 15시간(1학점)
6. 평가 - 없음
(연수과정 80%이상(12시간) 출석 시 이수증 발급)
7. 신청방법 : 신청서를 FAX(02-780-0485)로 전송 /
또는 이메일(edu@lawhome.or.kr)로 전송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신청 기간 : 2016.11.1.~마감시 까지
(전화로 확인 요망, ☎ 02-782-3601)
9. 과 정 :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혼인·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임대차에 관한 법률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폭력예방교육 등 강의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항상 상담소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소를 아끼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서 2016년 창립 60주년의 해를
내실 있고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이제 지나온 역사를 버팀목 삼아
우리나라 법률구조 사업의 개척자로서
번민하는 이웃들과 함께
완전한 양성평등의 사회를 이루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과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의 복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를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